

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제155호

2025년 발행 · 업계 조사 보고서 (실습용 가상 축약판, 원문 50페이지 콘셉트)

■ 요약

2025년 글로벌 공급망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. 해상 운임 지수는 연중 18% 하락했고, 기업들의 재고 전략은 적시(JIT)에서 상시 비축(JIC)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졌다.

■ 핵심 지표

- 글로벌 해상 운임 지수: 2,140 (전년 대비 -18%)
- 반도체 리드타임: 17주 (정점 대비 -9주)
- 국내 제조업 재고율: 111.4%
- 니어쇼어링 신규 투자: 215억 달러

■ 부문별 동향

전자·반도체 부문은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감산 기조가 유지되었다. 자동차 부문은 전동화 전환에 따른 배터리 소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었고, 소비재 부문은 물류비 안정화로 마진이 개선되었다.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68%는 공급처 이원화를 완료했다고 답했다.

■ 2026년 전망

관세 정책 변동성과 환율이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. 보고서는 기업들에 ① 공급처 삼원화 ② 90일 이상 핵심 부품 비축 ③ 물류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.

■ 조사 개요

조사 대상: 국내외 제조·유통 기업 412곳 / 조사 기간: 2025년 상반기 /
발행: 글로벌공급망연구소(가상)

(본 문서는 도서 실습용으로 제작한 가상 보고서입니다.)